

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2차)

1. 회의 일시 : 2020. 1. 9(목) 15:30~16:40
2. 회의 장소 : 행정본관 4층 회의실(26-405)
3. 위원회 위원

구 분	인 원	위 원 명 단
참석자	6명	구교남(기획처장), 박종국(총무처장), 박규생(예산부처장), 이승호(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), 천동현(공과대학 부학생회장), 정영훈(외부전문가위원)
불참자	1명	김지환(총학생회장)
기타	2명	안종한(예산팀장_간사), 장순광(학생복지팀_서기)

4. 안건

- 가. 외부전문가위원 위촉장 전달
- 나.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 논의

5.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

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

가. 외부전문가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소개

나.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안내 및 등록금 책정 논의

- 위원장: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에 의거 1.95% 인상 가능하나, 현실적으로 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
- 위원장: 지난 화요일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 하는 등 대학가의 분위기와 대학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
- 위원장: 본대학교 재정여건 전반에 관한 설명
 - 연도별 등록금 책정 현황 : 2009학년도부터 11년째 동결 및 인하
 - 연도별 등록금수입 현황 : 2011년 이후 감소분 누적액 135억원
 - 학부 입학금 단계적 인하/폐지 현황 : 매년 4.6억원씩 감소
 - 연도별 고교 졸업생의 감소 현황
 - 2020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학교의 재정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
- 학생위원1: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인상의 필요성은 느껴지지만, 지난 화요일 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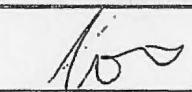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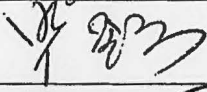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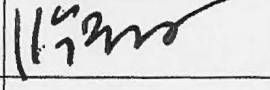
의 결과에 좋은 성과가 없다면 정부의 규제에 따라 동결이나 인하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

- 학생위원2: 대학교 평가에 따라 정원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, 학교의 시설투자 등의 문제로 낮은 등급 받았다면 학생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.
- 위원장: 실제로 A등급을 받은 대학(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)은 10개 미만이다. 여러 평가 지표 중 국립대와의 경쟁에 불리한 지표도 존재하고 어려움이 많다. B등급(입학정원 4% 축소)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라고 판단된다. 교직원의 급여 인상률 또한 소비자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하는 등, 지출을 줄이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. 등록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.
- 교직원대표1: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3년간 물가인상률이 1.3%이므로 결과적으로 -1.3%라고 봐야한다.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물가는 1.3% 인상되므로 그만큼 지난해보다 수준이 못할 수밖에 없다. 복지, 교육부문, 시설유지보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최근 몇 년간 교원 수와 행정직원의 수가 많이 줄었으며,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- 외부위원: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.
- 위원장: 학생들이 전기, 에어컨 등 시설물 이용에 낭비가 많다. 학생회에서 의식변화에 앞장섰으면 한다.
- 위원장: 학생위원들께서는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총학생회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차기 회의에서 결정 되었으면 한다. 차기 회의에서 예결산안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고자 한다.

다. 제3차 회의는 2020. 1. 16(목) 오후 3시 이후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폐회함.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20. 1. 9

구성	직책	성명	서명
교직원대표	위원	구교남	
	위원	박종국	
	위원	박규생	
학생대표	위원	김지환	-별첨-
	위원	이승호	이승호
	위원	천동현	천동현
외부전문가	세무사	정영훈	